

총기류범죄의 성행은 썩어빠진 미국사회제도의 필연적산물

신 명 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자본주의사회는 한마디로 말하여 썩고 병든 사회이며 전도가 없고 멸망에 가까와가는 사회입니다.》(《김정일선집》 제12권 증보판 423페이지)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고 각종 범죄가 성행하여 사람들이 늘 불안과 공포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는것이 오늘날 미국사회의 현실이다.

미국에서의 총기류범죄는 나이와 계층, 장소에 구애되지 않는다. 6살짜리 어린이가 총으로 살인을 하는가 하면 70살이상의 로인이 총을 란사하여 사람을 죽이고 있으며 살림집과 상점, 빠스정류소와 극장을 비롯한 공공장소는 물론 종교의식이 거행되고있는 예배당과 어린이들의 랑랑한 글소리가 울려퍼져야 할 학교들에서 끔찍한 총기류범죄들이 감행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집권세력과 반동적인 어용학자들은 미국에서의 총기류범죄의 성행이 그 무슨 정신이상자들에게 의한것처럼 묘사하면서 총기류범죄가 성행하고있는 근원을 가리우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이로부터 미국에서 총기류범죄가 성행하고있는 원인을 바로 해명하는것은 범죄왕국으로서의 미국의 진상을 까밝히고 썩어빠진 미국의 자본주의사회제도의 반동성과 부패성을 옳게 인식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미국에서의 총기류범죄의 성행은 총기류범죄로 성장해오고 사람들을 썩어빠진 양키식문화로 길들이며 개인들의 총기류소유를 합법화하고있는 미국의 사회제도가 낳은 필연적인 산물이다.

총기류범죄의 성행이 미국사회제도의 필연적인 산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미국의 사회제도자체가 끊임없는 침략과 랍탈전쟁으로 세워지고 팽창되여온 반동적인 사회제도이기때문이다.

미국의 사회제도의 발생변천과정은 침략과 랍탈전쟁의 확대과정이다. 침략과 랍탈전쟁은 총기류를 수단으로 하여 감행되며 총기류범죄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미국은 대서양을 횡단하여온 유럽식민주의자들 특히 앵글로-썩슨족의 무리들이 북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인 인디안들을 멸살시키고 그들의 시체우에 군림한 침략국가이다.

미국은 북아메리카대륙에서 살고있던 70여개에 달하는 인디안종족들의 멸족과 수백만에 헤아리는 인디안인들의 무덤우에 세워지고 자본주의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부족되는 로동력을 보충할 목적으로 《노예무역》을 통하여 끌어온 수천만의 아프리카흑인들의 희생과 피땀의 대가로 살찌운 랍탈국가이다.

미국은 앵글로-썩슨족의 후예들과 북아메리카대륙에 식민지를 세운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이 주변국가인 메히꼬와의 침략전쟁을 통하여 령토를 넓혀온 침략국가이다. 독립당시 불과 70만km²의 면적을 가지고있던것이 19세기말에 이르러 900여만 km²의 면적을 가진 국가로 전변된것이 다름아닌 바로 침략과 랍탈의 피수인 미국이다.

침략과 랍탈을 떠난 미국이란 있을수 없다. 하기에 오늘도 여전히 미국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비롯한 세계각지에서 끊임없는 침략과 랍탈전쟁을 벌리고있다.

수백여차에 달하는 강도적이고 야만적인 침략전쟁과 극악하고 잔인무도한 대량학살, 온갖 비열하고 횡포한 권모술수로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군림한 미국에서 침략과 랍탈은 국가의 정책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끊임없이 집행되고있는 미국에서 총기류범죄가 있게 되는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것은 침략과 랍탈전쟁과정에 야수화된 인간들에 의하여 감행되고있는것이 총기류범죄이고 끊임없는 랍탈정책을 추구하고있는 국가에 의하여 적극 비호, 조장, 묵인, 사촉되고있는것이 총기류범죄이기때문이다.

하기에 침략과 랍탈전쟁에 동원된 미국 병사들은 국내에서 총기류범죄를 저지르다 못해 외국에서 짐승도 낮을 불힐 온갖 형태의 총기류범죄들을 감행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만인의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다.

총기류범죄의 성행이 미국사회제도의 필연적인 산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미국의 사회제도가 사람들을 정신문화적으로 타락시켜 총기류범죄에로 나아가게 하는 반인륜적인 사회제도이기때문이다.

문화는 사람들을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갖춘 힘있는 존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다.

계급사회에서 정신문화는 계급적성격을 띠며 해당 사회에서 사람들의 정신문화생활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장악한 지배계급의 의사와 요구, 리익에 맞는 조건에서만 국가에 의하여 담보되고 보장된다.

미국에서의 정신문화생활은 사람들의 건전한 사상의식을 마비시키고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와 인간증오사상을 고취하며 사치와 부화방탕을 조장시켜 사람들을 정신적, 육체적불구자로 만드는 반인륜적인 정신문화생활이다.

미국의 사회제도는 개인의 리익과 향락, 돈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초보적인 존엄과

량심도 켜버리고 부모, 처자들까지도 죽이는 반인륜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도록 하는 극도의 개인리기주의와 황금만능의 사상을 고취한다.

그것은 미국의 사회제도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독점한 극소수 부르조아지의 특권적지위와 착취적이며 기생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사람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자본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사상과 문화, 썩어빠진 미국식생활양식을 조작해낼뿐아니라 그것을 반동적인 선전보도기관들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류포시키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의 사회제도는 사람들을 극도의 인간증오사상과 야만성으로 충만된 야수적인 존재로 만들기 위한 반인륜적인 선전공세를 강화한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TV방송프로 중 90%가 총기류와 관련된것이고 80%가 류혈적인 살인내용을 담고있으며 사람들의 청취률이 높은 시간에 방영되는 프로그램에서 폭력화면이 시간당 평균 8~12번 펼쳐지고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신문의 10~30%의 지면이 순수 범죄기사로 되어있으며 미국의 주요신문 12개에 한달동안에 실리는 범죄기사는 그 구체적인 내용전반을 빼놓고라도 300페이지의 책 6권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의 사회제도는 인간과 동물의 한계를 가를수 없으리만큼 색정과 부화방탕, 패륜과 패덕을 고취하면서 사람들을 도덕적저능아, 《동물적인간》으로 만들고있다.

극심한 생활난과 암담한 미래로 생의 의욕을 버리고 자포자기에 빠져있는 미국사람들에게 극도의 개인리기주의와 인간증오사상, 패륜패덕을 고취하는 미국식생활양식은 사람들을 정신문화적으로 더욱 타락시켜 총기류범죄에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게 한다. 태어나서 자라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것들이 모두 각양각색의 총기류범죄

들이고 총기류를 수단으로 하여야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나갈수 있는 미국에서 정신적불구자로 전락된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하여 하는수없이 나아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총기류범죄인것이다.

하기에 미국사람들은 썩어빠진 미국식 생활양식을 버리지 않는 한 미국에서의 총기류범죄가 영원히 사라질수 없다고 하고 있다.

총기류범죄의 성행이 미국사회제도의 필연적인 산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미국의 사회제도가 개인들의 총기류소유를 합법화하면서 사람들에게 총기류범죄를 감행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주고있는 반동적인 사회제도이기때문이다.

총기류범죄는 총기류를 수단으로 하여 감행되는 범죄이다. 개인들의 총기류소유는 총기류범죄가 감행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총기류범죄를 막자면 개인들의 총기류소유를 금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인들의 생명안전을 담보해줄수 없는 미국에서는 《개인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미명밑에 군수독점체들에게 더 많은 리운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개인들의 총기류소유를 합법화하고있다.

미국에는 개인들의 총기류소유를 합법화하고있는 법률들이 수없이 많다. 개인들의 총기류소유를 합법화하고있는 미국의 법률에는 국가의 최고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있는 헌법은 물론 각 주의 재판소들에 법적효력을 미치는 최고재판소의 판례들, 각종 단행법규들과 형사관련규범들 등이 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2조에서 《국민들은 무기를 보유하며 휴대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미련방 최고재판소는 주정부, 지방정부들은 개별적인 주민들이 각이한 종류의 총을 소유할 《권리》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결

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법규범들과 판례들에 의하여 아리조나주를 비롯한 미국의 10여개의 주들이 개인들의 총기류휴대를 합법적인것으로 인정해주고있다. 그리고 주택을 침입하는 《범죄자》에 대하여 집주인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 총기류를 사용하여 《범죄》를 막을수 있으며 총기류사용으로 침입자가 부상당하거나 사망되었을 경우 집주인은 이에 대하여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는 법규들이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현재 학교들에서 련이어 감행되고있는 총기류범죄를 막는다는 미명밑에 교원들과 학생들이 무기를 가지고 다닐수 있다고 하는 법들이 련이어 채택되고있다.

개인들의 총기류소유를 합법화하는 이러한 법들과 재판소의 판례들은 극도의 개인리키주의와 미국식생활양식에 물젖은 사람들이 총기류범죄에로 나아가는것을 비호조장하고있을뿐아니라 적극 추동하고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에서는 개인의 총기류소유를 합법화하고있는 법들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총기류를 소유하고 임의의 시기에 대상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총기류범죄를 감행하고있다.

미국에서는 주민 100명당 90정의 총기류를 소유하고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주민들이 가지고있는 총의 35~50%를 차지하고있는것이며 개별적인 주민들이 가지고있는 무기는 2억정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돈만 있으면 남녀로소에 관계없이 그 누구라도 아무런 제한도 받음이 없이 자유로이 총기류를 살수 있다고 한다.

미국에서 개인들의 총기류휴대의 합법화는 그들이 떠벌이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국민의 권리》, 《소유의 자유》에 있는것이 아니라 군수독점체들의 리익을 보장해주자는데 있다.

미국에서 군수업체들은 정부의 적극적

인 후원밑에 수천억US\$에 달하는 군사비를 들여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만들어내고있을뿐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해마다 평균 300만정에 달하는 무기를 생산하여 개별적인 주민들에게 팔아먹고있다고 한다.

오늘 극단한 개인주의와 인간중오사상에 오염될대로 오염된 미국사회에서 총기류소유를 합법화하고있는 법들에 의해 총기류범죄는 더욱 성행하고있다.

하기에 미국언론들도 총기류의 자유로운 매매를 허용하고있는 미국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미국의 총기류범죄율은 절대로 줄어들수 없다고 하고있다.

모든 사실은 미국에서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제도가 존재하는 한 사람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있는 총기류범죄는 언제 가도 근절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